

광주 콜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 63명...다른 층으로 확산

추가 발생 우려...확산 방지에 총력
전남, 연휴기간 6명 확진 누적 865명

광주에서 보협사 콜센터 근무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밀접 접촉 등에 따른 자가격리자가 수백명에 이르고, 다른 층으로 확산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광주시 등 방역 당국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 추가 확진자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는 2093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광주에서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서구 상무지구 소재 콜센터건물(라이나생명) 관련 확진자는 4명으로, 콜센터 누적 확진자는 63명으로 늘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2일 콜센터 관련 지표 확진자(광주 1994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동료와

가족 등 총 63명이 감염됐다. 그동안 총 2284명이 검사를 받아 양성 63명, 음성 2211명, 검사 중 10명 등이다. 이들 중 478명은 자가격리 중이며, 확진자 추가 발생 등에 따라 접촉자 재분류해 격리대상을 확대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콜센터 건물 내 감염이 다른 층 사무실로 확산한 점에 주목하고, 추가 확진자 발생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층별 확진자는 4층 35명, 5층 9명, 6층 1명, 12층 2명 등이다. 방역당국은 층별 추가 발생에 따른 동선에 따라 12층 근무자와 지하 식당 이용자 등 능동 감시자 410명을 검사했으나, 다행히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지난 설 연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수칙을 어기고 가족 모임으로 9명 집단 감염을 유발한 가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또 지난달 26~27일 야간에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유흥시설 밀집지역에서 중점관리 시설을 점검해 위반업소 2곳을 적발했다. 광주시는 영업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은 유흥주점 1곳, 5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식당 1곳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사흘간 연휴 동안 모두 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27일 0명, 28일 2명, 3월 1일 오후 6시 현재 4명이다. 전남 860번 확진자는 나주 거주 50대 남성으로 광주 라이나생명 밀접접촉자의 가족이다. 전남 861번 목포 확진자는 50대 여성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받았다. 전남 862번 확진자는 합평에서 자영업업을 하는 50대 남성으로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863~865 확진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국에 걸쳐 355명 늘어 누적 9만29명으로 집계됐다. 전남(356명)보다 1명 줄면서 이를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다. 평일보다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휴일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발생이 338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최근 1주일(2.23~3.1)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56명→440명→395명→390명→415명→356명→355명을 기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김형호 기자 khh@

“4차 재난지원금 확대하라”

김영록 지사, 정부에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과 전통시장 노점상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 지사는 각종 행사 취소로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학교급식 중단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친환경 농산물생산농가, 수확 감소로 피해를 입은 벼 재배농가, 공연·행사·여행 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예술인, 전세버스 기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상인회에 소요료나 회비를 납부해 특정이 가능한 전통시장 노점상·미등록상인과 농어촌민박 미등록사업자, 장기간 비대면 예배 및 인원 제한으로 비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했던 종교시설까지 확대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적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 노점상과 미등록상인 등 11개 취약업종(1만 9787개소)에 대해 도비 9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11개 취약업종은 전통시장 노점상·미등록상인을 비롯 농어촌민박 미등록사업자, 예술인, 사립박물관·미술관,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여행업, 실외시설꽃살장, 유흥시설 등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위기에 처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각지대 취약분야가 여전히 많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취약업종 사업자나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도 실감장들은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완도해경, 102주년 삼일절 태극기 물결

열을 갖추고 순국선열을 추모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제102주년 삼일절을 맞아 해경 전용부두에서 직원 80여명이 3과 1을 형성하는 대

〈완도해경 제공〉

한국학호남진흥원,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3·1운동’ 출간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3·1운동’을 최근 출간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항일독립 의지를 공유하고, ‘의향’ 호남이라는 시도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출간했다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이다.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3·1운동’은 국가기록원이 소장중인 광주·전남 3·1운동 관련자 345명(89건)의 1·2·3심 재판 판결문을 번역하고, 호남지역 3·1운동의 특징과 지역별 전개 상황, 참여 인물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한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은 1부 총설 판결문에 보이는 광주·전남 3·1운동과 지역별 전개 상황, 2부 판결문 번역자료, 3부 판결문에 보이는 광주·전남 3·1운동 인물 해제로 구성

됐다. 부록과 판결문 원문을 수록해 분량은 모두 630여 쪽에 달한다.

이를 통해 호남지역 3·1운동은 사전에 조직적으로 전개됐고, 의병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3·1운동에도 가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광주·전남 3·1운동 재판 판결문 번역 사업’을 추진한 결과물로, 판결문 번역은 조당대 박해현 교수가 맡았다.

전덕영 원장은 “이번에 출간된 자료집은 그동안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호남지역 3·1운동의 구체적 실상을, 이번 자료집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2021년 3월

루쉰의 ‘아Q정전’

광주일보사와 최진석(사단법인 새말새물결 이사장)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함께하는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3월의 책으로 루쉰의 ‘아Q정전’이 선정됐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혁명가, 문학가인 루쉰의 대표 소설 ‘아Q정전’은 중국 신해혁명 전후를 배경으로 시골 남쪽마을 ‘아Q’를 주인공 삼아 당시 중국의 현실과 자기 합리화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관련기사 16면〉



한인 가정 미국 정착기 담은 ‘미나리’

골든글로브 최우수외국어영화상

3월 국내 개봉 예매율 1위

오는 3월 개봉 예정인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로브에서 최우수외국어영화상 수상과 함께 예매율 1위에 올랐다. 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미나리’는 이날 오후 현재 예매율 24.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미국 아칸소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는 이날 오전 미국에서 열린 제7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외국어영화상 수상 소식을 전했다.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HFPA)는 28일(현지시간) 오후 열린 제7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 수상작으로 ‘미나리’를 선정해 발표했다. 〈관련기사 17면〉

‘미나리’는 지난해 미국의 대표적인 독립영화제인 샌댄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은 이후 주목받아 왔다.

‘미리 보는 아카데미상’으로 평가되는 미국영화연구소(AFI) 선정 ‘2020 AFI 어워즈’에서 10대 영화에 올랐고, 112년 역사의 전미비평가 위원회에서 여우조연상과 각본상을 받았다. 윤여정이 받은 26개의 여우조연상을 포함해 28일(현지시간)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까지 모두 75개의 상을 받았다.

최우수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리 아이작 정(정어사) 감독은 영상에서 꺼내고 있는 딸을 ‘이 영화를 만든 이유’라고 소개하며 영화에 함께 한 배우와 스태프들, 가족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인 정 감독이 쓰고 연출하고 브래드 피트가 설립한 플랜B가 제작한 미국 영화지만, 대화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HFPA 규정에 따라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올랐다.

현지 주요 비평가협회를 포함해 여러 시상식에서 총 20개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윤여정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성과를 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올해 골든글로브의 주인공은 중국 출신인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로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차지했다. 아시아계 여성 감독으로서의 최조다. /연합뉴스

전국임야

★삽니다★

지분물건 환영/맹지사절

문의. 010-6837-4700

대지급매

위치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면적 **2,816㎡(853평)**

금액 **71억**

(부동산 중개인 사절합니다)

문의 **010-6432-507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악 준주거, 담양양각 주거2중

-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6십5만원
- (2)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홀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